

희귀 과수 '레몬' 수확...가공식품 개발·체험장 목표

‘열대 작물 메카’ 전남 재배 농가 가다

〈2〉정시호 장성 ‘아름드리 농원’ 대표

지역농협·군 추천받아 2022년부터 재배
생산량 증가·안정화 시 해외 수출 계획도

넓은 시설하우스 안 초록색의 레몬나무들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줄지어 서있는 농장이 있다.

정시호(66) 대표가 운영하는 장성군 삼서면에 위치한 아름답드리 농원이다.

정 대표는 한평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농사를 접해 직장생활과 농업을 병행하다 20여년전 본격적으로 전직해 농업에 뛰어 들었다.

벼농사를 거쳐 배, 감 등 과수농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물 재배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지역 농협과 군에서 열대작물을 추천받아 2022년부터 레몬을 키우게 됐다.

아름드리 농원에서는 제주도에서 온 유레카 품종의 레몬이 재배되고 있으며 올해는 5~10%, 내년에는 70~80% 정도를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대표는 “과수이다 보니 열매를 수확하려면 레몬 묘목을 심은지 3~4년 정도 지나야 가능하다”며 “추후 생산량이 많아지고 생산이 안정화되면 수송기간이 짧은 일본 등에 신선함을 강점으로 수출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레몬은 적정온도가 25℃ 정도로 온도 조절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1년 내내 꽃이 피고 자가수분을 한다.

정 대표는 “여름철 하우스 안은 45℃에 육박한 적도 있을 만큼 덥기 때문에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 스크린을 치는 등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살피고 있다”며 “여름과 겨울의 온도 편차를 줄여 온도차에 따른 나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위에서부터 나무에 열린 레몬, 레몬 꽃, 아름답드리 농원 레몬 나무 모습.



▶정시호 아름답드리 농원 대표가 레몬꽃을 보며 레몬 재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직은 키우는 농가가 많지 않고 재배 방법도 배우는 중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제주도 등 레몬을 키우는 농장에 견학을 가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군의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

또 처음 키우는 작물인 만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정 대표는 “이전에 레몬을 키워보진

않았지만, 과수 농사를 한 경험을 살려 레몬 재배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손주들이 레몬 나무나 열매를 보고 너무 좋아해서 일하는 보람을 느꼈다”고 미소지었다.

앞으로는 레몬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이나 체험장 운영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

정 대표는 “현재는 레몬을 키운 지 일

마 되지 않아 수확량이 적지만 계속하다 보면 늘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과실 판매 외에도 청을 담그는 등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주위에서 많이 키우지 않는 작물이라는 특징을 살려 체험장을 운영, 더 많은 사람들이 장성의 레몬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대표는 “현재는 레몬을 키운 지 일

다

4월 친환경농산물 담양 ‘완숙 토마토’

친환경농법 실천 역대 소득 창출 ‘슈퍼푸드’

전남도가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에서 생산하는 ‘완숙 토마토’를 4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

토마토는 뉴욕 타임즈 선정 10대 슈퍼푸드 가운데 하나로 맛있고 영양소도 풍부하다.

비타민C,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산화물질을 함유해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은 칼로리로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건강에 좋은 리코펜도 풍부하다.

최근 담양 수북면의 차인수(53) 담도팜 대표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완숙 토마토 수확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10년부터 14년 동안 지속 실천해 친환경인증을 받았으며 재배 면적은 1.6ha(무농약 1.3ha·유기 0.3ha)다. 친환경 농법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

용한 체계적 관리로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해 맛과 품질 좋은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식한 토마토는 10월부터 시작해 오는 6월까지 수확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

이 토마토는 상품성을 인정받아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로컬푸드 등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100여을 생산해 4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유덕규 친환경농업과장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과수·채소 분야 다양한 품목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친환경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한 친환경 완



숙 토마토는 담양군 축산원예과(061-380-2766)에 문의하면 구입할 수 있다.

/김재희 기자

전남농협,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모바일 카탈로그 출시

하나로마트 남악점서 시연회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17일 “지난 15일 하나로마트 남악점에서 농협에서 자체 제작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모바일 카탈로그’(사진) 출시기념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카탈로그는 모바일 QR코드



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페이지 내에 전남의 고향사랑기부 농산물 답례품 정보를 품목별, 지역별로 분류해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톡, SMS, E-mail 등을 통해 홈페이지 공유도 가능하다. 또 페이지 내에 고향사랑이음사이트

연동을 통해 손쉽게 기부 참여와 답례품 신청도 가능해 고향사랑기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농협은 시연회 이후 하나로마트 방문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카탈로그 공유하기 이벤트’를 개최, 전남농협의 주요 답례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김재희 기자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도, 마케팅·상품화 등 조직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전남도는 17일 “전략품목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안정적 물량 확보와 취급량 확대를 위해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을 도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4억원이다. 조직 역량 강

화를 위한 교육과 상품화 비용으로 생산자조직 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조직은 시·군 조공법인, 지역농협에 속한 2개 공선출하회다. 자격 요건은 전년 출하금액이 5억원 이상 규모

이고 10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지원 사업비는 생산·재배 기술 전문가 초빙 교육, 선진지 견학, 상품화 마케팅, 공동선별비, 물류비, 포장재비로 활용할 수 있다.

국비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과 별개로 물류비와 상품 포장재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소규모 전략 품목을 취급하는 영세한 지역농협과 공선회 조직의 육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양시원 기자

우리 지역 분양 소식

비싸고 불안하기만 한 아파트 가격! 임대가 답이다

영무에다음 현재 사전 청약 접수중 (특별혜택)

최고의 가치

10년 전세 아파트

1억7천대~ 영무에다음 더 퍼스트

페이스튼국제학교
2026년초 개교

달빛내륙철도
호재

문의 전화 1533-8321

HILLSTATE

삶이 예술이 되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 실시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 1,466세대 분양 선착순 등·호수 지정 계약중!!

로얄층 마감임박

1,466세대 대단지

(구)33평형, 43평형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무이자

선착순 등 호지정

총 1,466세대 84㎡, 102㎡, 112㎡, 157㎡
(2블록 785세대 / 3블록 681세대)

대표 전화 1533-8316